



자매

Sisters

자매

Claire Keegan

-
옴긴이 노지양

Claire Keegan / 클레어 키건
자매

PUBLISHED BY Literature Ireland
36 Fenian Street
Trinity Centre for Literary and Cultural Translation
Trinity College Dublin, Dublin D02 CH22
Ireland

COMMISSIONING EDITOR Sinéad Mac Aodha
ART DIRECTION AND ARTWORK Gaia Baldassarri
EDITORIAL TEAM Isabel Dwyer and Lynsey Reed

ORIGINAL TITLE *Sisters*
COPYRIGHT © Claire Keegan, 1999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WAS PUBLISHED BY Faber and Faber
(1999) AS PART OF THE COLLECTION *Antarctica*
© Faber and Faber, 1999
COPYRIGHT FOR THE KOREAN TRANSLATION © Jiyang Noh, 2023
COPYRIGHT FOR THIS EDITION © Literature Ireland, 2023

PRODUCED BY Language, www.language.ie

ISSN 2811-6143



대한민국 부천
-
Dublin, Ireland

Literature Ireland 는 아일랜드 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아일랜드 국립
기관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현대 아일랜드 문학의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Literature Ireland is the national agency
in Ireland for the promotion of Irish
literature abroad. We work to build an
international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contemporary Irish literature, primarily
in translation.*

보통 포터네 식구들은 엽서를 보내 언제 도착한다고 알리곤 했다. 베티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개가 짖을 때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창문으로 쫓르르 달려가 공작 고사리잎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큰 길을 따라 올라오는 우체부가 보이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6월이 코앞이었다. 아침저녁에도 서늘한 기운이 사라지고 나무에 매달린 탱글탱글한 자두 열매들은 자줏빛으로 익어갔다. 포터 가족이 곧 올 것이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요리를 해달라고 하고 깨끗한 손수건을 찾고 보온주머니나 얼음이 있냐고 묻겠지.

베티의 여동생 루이자는 젊을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세일즈맨인 스탠리 포터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스탠리는 루이자의 긴 머리카락이 등을 타고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모습에 첫

눈에 반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루이자의 머리아 원래 탐스럽기로 유명했다. 어린 시절 베틀은 밤마다 동생의 풍성한 금발 머리를 빗으로 백번씩 정성껏 빗어준 다음 가지런히 쌓아서 새틴 리본으로 묶어 주었다.

반면 베틀의 머리카락은 언제나 그랬듯이 눈길이 가지 않는 평범한 갈색이다. 베틀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희고 여성스러운 손이었고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일요일마다 성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곤 했다. 하지만 오랜 노동의 세월을 보내며 고왔던 손은 어느새 억세고 거칠어졌다. 손바닥에는 막일하는 농사꾼들처럼 굳은살이 생기고 손마디는 굵어졌다. 그래서인지 손가락 주변에 주방 세제로 거품도 내보고 피마자 오일도 발라 보았지만 젊었을 때 낀 엄마의 결혼반지는 영 빠지지 않았다.

베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집으로 불리는 농가 주택에서 산다. 원래 개신교도 농장주 소유였는데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이 끝나자 집을 팔고 이사 갔다. 토지 관리 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사들여서 주인이 쓰던 3층 저택은

허물었고, 남아 있던 2층짜리 관리인용 숙소와 주변을 둘러싼 70에이커의 땅은 운 좋게 베틀의 아버지가 결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집 자체는 전체 정원 규모에 비해 작고 농장에도 너무 바짝 붙어 있는 편이었지만 담쟁이덩굴이 타고 올라가는 벽돌 담장은 누가 봐도 고풍스럽고 아름다웠다. 현관문 앞 화강암 아치형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너른 부지에는 마구간과 헛간과 높은 창고와 마차보관소로 쓰였던 작은 건물과 널찍한 견사가 있고 작은 집도 있다. 집 뒤편의 울타리가 쳐진 과수원에서는 예전 집주인이 검은 황소를 방목해 키웠다고 한다. 동네 꼬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였다는데 아무래도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약했던 듯하다. 이 장소에는 역사가 있고 과거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파넬¹⁾이 집의 응접실에서 이를 뽑

1) 찰스 스투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1846-1891): 아일랜드의 정치인이자 독립 운동가로 19세기말 아일랜드 자치 운동을 이끌었다. 그가 어린 시절 이 동네에 살았고 치과가 없던 시절 이 집에 와서 이를 뽑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은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탁 트인 부엌에는 격자무늬 창문 아래 큼직한 아가(Aga) 스토브²가 있고 중앙에는 베틀이 토요일마다 닦아 광을 내는 참나무 식탁이 있다. 거실의 흰 대리석 벽난로는 마호가니 가구들과 잘 어우러진다. 계단을 올라가면 빛이 잘 드는 2층이 나오고 참나무 문을 열면 농장의 전망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커다란 침실이 세 개 나온다. 2층에도 욕실이 있는데 베틀이 아버지의 병구완을 하면서 설치한 것이다.

베틀도 한 때는 영국으로 떠나 도시 여자로 살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평생 고향에 남아 집과 농장을 관리하는 처자가 되어 있었다. 자매가 어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고도 허무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오후 땀감을 모으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 언덕 위에서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급사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장녀인 베틀이 엄마 역할을 대신하면서 기

2) 영국 중산층에게 인기 있었던 아가Aga 브랜드의 스토브로 일반명사처럼 쓰인다.

분이 오락가락 하고 성격이 불같은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다. 녹록치 않은 삶이었다. 농가에는 사육하고 접종시켜야 할 소떼가 있었고, 여물을 주어야 할 돼지가 많았고, 크리스마스 전에 더블린으로 배송 보내야 하는 터키도 있었다. 여름이면 들판의 잡초를 베고 가을에 보리와 귀리를 수확하다 보면 일 년이 지나갔다.

아버지가 농사일 전반을 감독했으나 일은 점점 줄이고 가장 힘든 농사일은 인부에게 맡겼다. 입만 열면 가축병원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불평하고 병중일 때 병자성사를 해주러 온 신부를 모욕해서 내쫓고 베틀의 음식 솜씨를 타박하면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그 말은 곧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었다. 변화를 어지간히도 못 견디는 양반이었다. 말년에는 검은색 오버코트를 입고 발을 쏘다니면서 언덕에 목초가 얼마나 자랐는지 검사하고 옥수수 낱알이 몇 개인지 세고 다녔다. 소가 야위어가고 문이 녹슬었다고 매번 구시렁거렸다. 그러다 해지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시간이 없

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없어.”

“몹쓸 소리 좀 작작 하세요.” 베티는 이렇게 대꾸하곤 했지만 똑같은 행동과 잔소리는 이어졌다. 그러다 작년 겨울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죽기 3일 전에도 누워서 발로 이불을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다. “버터밀크 남았다. 버터밀크!”

아버지가 화요일 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을 때 베티는 슬퍼하기보단 안도했다.

베티는 영국으로 건너간 동생 루이자의 인생 경로를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베티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루이자는 결혼식을 올렸고 소원대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베티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동생네에 과일 케이크를 보내고 부활절에는 홈메이드 퍼지 케이크를 보내고 조카들의 생일을 기억해 카드와 함께 아껴두었던 파운드 지폐 몇 장을 동봉했다.

베티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딱 한번 개신교도 청년 시릴 도우와 진지하게 사귀었으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졌다. 그 이후로는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결혼과 출산 적령기가 훌쩍 지나버렸다. 베티는 언젠가부터 이 커다란 집에서 아버지를 수발하고 화풀이할 때 진정시키고 진한 차를 우려주고 셔츠를 다림질하고 토요일 저녁의 외출용 구두를 닦아주며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베티는 토지를 임대해 임대료를 받았고 아버지가 알리드 아이리시 은행에 저축해둔 돈도 있었기에 알뜰하게 생활하면 혼자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나이도 어느덧 쉰이었다. 집은 베티가 물려받았으나 유언장에는 루이자가 살아 있을 때는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루이자를 애지중지했다. 아버지에게 도시로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둘째딸은 자랑거리요 매일 보는 맏딸은 그저 자기 식사를 챙기고 옷을 빨고 아플 때 간병해주는 사람이었다.

포터네 식구들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6월이 지나갔고 베티는 처음에는 안절부절 못했다. 텃밭에 심은 상추와 봄양파가 그대로 시들어 버릴까 걱정이었고, 이렇게 된 바에 해변가 호텔을 빌려서 혼자 여름휴가를 떠나는 상상을 해 보기도 했다. 밸리머니³나 카호어 포인트⁴로 여행을 가면 어떨까나.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았다. 베티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베티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에 남겨둔 한 마리 소의 젖을 짜고 일요일에 미사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베티는 정적인 생활을 사랑했고 집을 혼자 차지할 수 있어서 기뻐했으며 이제까지 지켜온 살림살이와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의 느낌이 찾아왔다. 매일 잡초

3) Ballymoney 북아일랜드 북부에 위치한 앤트림주의 소도시로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다.

4) Cohore Point, 웨스포드 주 카호어 근처 절벽 경치로 유명한 해안.

를 뽑고 정원을 가꾸고 토요일에는 전정가위를 들고 나가 성당 단상에 놓을 꽃을 꺾어오기도 했다. 그 동안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느라 매일이 즐겁게 바빴다. 코바늘 뜨개질을 하고 레이스 커튼을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하트 램프⁵의 전구를 교체하고 말 여물통의 이끼를 긁어내고 아치형 입구 앞 정문을 페인트칠했다. 과일이 알맞게 익으면 잼도 만들어 저장해둘 생각이었다. 감자 저장고도 만들고 온실에서 토마토 절임을 만들 계획도 세워두었다. 동생네 가족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쉬울 건 아무 것도, 단 하나도 없었다. 이번 여름을 온전히 혼자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저울에 설탕 조림할 과일의 무게를 재고 있었을 때 우체부가 집 앞에 자전거를 세우는 소리를 들었다.

“미스 엘리자베스, 가족 분들께서 9일 저녁에 페리를 타고 오신다네요.” 그가 말했다. “버

5) sacred heart lamp, 아일랜드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톨릭 용품인 촛불 모양 램프.

스로 에니스코시⁶까지 오고요. 거기까지 차를 보내면 되겠네요.” 그는 카드를 선반 위에 놓더니 스토브 위의 주전자를 가져와 자기가 마실 차를 탔다. “날씨 좋을 때 잘 골라왔네요.”

베티도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할 시간이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이왕 올 거면 미리 알려줄 것이지.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도 의아했다. 동생의 남편은 언제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라는 커다란 승용차를 몰고 와 으스스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베티는 걸레나 먼지 털이로 쓰던 아버지의 오래된 조끼들을 몽땅 버리고 빈 흑맥주 병들을 숲으로 옮겨 풀숲 밑에 묻었다. 러그를 걷어서 평소보다 몇 배의 힘으로 팡팡 두들겨 먼지를 탈탈 털었다. 낡은 담요는 옷장 뒤에 숨겼고 매트리스를 뒤집은 다음 집에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시트를 침대마다 깔았다. 베티는 언제나 침대에 뽀뽀하고 청결한 면 시트를 깔아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자

6) 에니스코시(Enniscorthy) 웨스포드 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

기가 몸져누웠을 때 의사나 신부가 집에 왔다가 얼룩덜룩한 침대 시트를 발견하는 건 생각만 해도 민망했기 때문이었다. 부엌 찬장에서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그릇을 모두 꺼낸 다음 그 자리에 버드나무 문양이 새겨진 디너 세트를 채워 넣었다. 식료품점에서 백밀과 통밀과 설탕을 주문했고 무릎을 꿇고 앉아 마룻바닥을 윤이 날 때까지 닦았다.

....

동생 가족은 금요일,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도착했다. 택시 클락션 소리가 들리자 베티는 앞치마를 서둘러 벗고 손님을 맞으러 현관 앞까지 뛰어 나갔다.

“어머, 베티 언니!” 루이자는 마치 그 장소에서 베티를 만난 것이 놀랄 일이라는 듯이 말했다.

베티는 흰색 여름 투피스를 입은 루이자를 안아 주었다. 루이자는 이전보다 더 젊고 활기차보였다. 금발의 웨이브 머리가 목을 따라 흘

러내렸고 드러낸 팔은 갈색으로 건강하게 그
을어 있었다.

동생의 아들 에드워드는 키가 크고 호리호
리 하며 이제 바깥에서 뛰어 노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길 선호할 만한 무표정한 청소년이 되
어 있었다. 조카가 서늘한 손바닥을 앞으로 뻗
었고 베티는 그 손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
다. 정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은 인사였
다. 둘째인 딸 루스는 인사도 없이 관리 안한
테니스 코트로 폴짝폴짝 뛰어 내려갔다.

“루스, 이리와, 베티 이모한테 뽀뽀부터 해
야지!” 루이자가 큰 소리로 딸을 불렀다.

“제부는 안 왔어?”

“회사일 때문에 못 왔어. 워낙에 바쁜 사람
이잖아.” 루이자가 말했다. “나중에 합류할거
야.”

“너 여전히 피부도 좋고. 예쁘게 차려 입었
네.”

루이자 는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베티
에게는 듣기 좋은 빈 말도 해주지 않았다.
웃음의 크기에 비해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는

치아가 새하얗게 빛났다. 택시 운전사가 자동
차 지붕 위 짐칸에서 여행 가방들을 하나씩 내
려놓기 시작했다. 짐이 많기도 많았다. 검은색
래브라도 개도 한 마리 데려왔고 책도 한 묶음
이었고 베개와 웰링턴 장화에 플랫, 레인코트,
체스보드, 울 스웨터도 있었다.

“치즈 가져왔어.” 루이자 는 베티에게 냄새
가 고약한 체다 치즈 한 팩을 내밀었다.

“그래, 수고했네.” 베티는 말하며 치즈에 코
를 대보았다.

루이자 는 현관문 앞에 서서 렌스터 산 정상
의 항상 조명이 켜져 있는 높은 관측소와 울창
한 숲과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베티 언니, 역시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살
랑거려.”

“어서 들어와.”

베티는 저녁을 미리 차려두었다. 스토브 위
에서 주전자 두 개가 끓으며 주둥이에서 수증
기가 칙칙거리며 뿜어 나왔다. 저녁 햇살이 격
자무늬 창문으로 가득 들어와 미리 식혀둔 로
스트 치킨과 포테이토 샐러드 위로 드리워졌

다.

“우리 불쌍한 코벤트리. 오는 내내 케이지에 갇혀 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루이자가 개를 쳐다보며 말했다. 개는 부엌 그릇장 앞에 떡 버티고 앉아 있어 베틀은 문을 열기 위해서 개를 리놀륨 장판 위로 질질 끌어내야만 했다.

“비트는 없어요? 엘리자베스 이모?” 에드워드가 물었다.

베틀은 양상추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씻긴 했지만 저녁 먹을 때 샐러드 볼에서 벌레라도 기어 나오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찻주전자를 데우고 통밀 빵을 얇고 가지런하게 잘라서 식탁에 올렸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루스가 말했다.

“엄마가 팔꿈치 식탁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루이자가 잔소리 하면서 버터 접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하나 주었다.

샐러드드레싱에는 후추를 지나치게 많이 뿌렸고 루바브 타르트에는 설탕을 부족하게 넣

었다 싶었지만 다들 맛있게 먹었는지 남은 건 포테이토 스킨 몇 조각, 닭 뼈다귀, 기름으로 미끈거리는 접시뿐이었다.

밤이 되자 루이자는 베틀과 같은 방에서 자자고 했다.

“옛날 생각나잖아, 그치? 그때처럼 내 머리도 빗겨주라.”

루이자는 그 사이 영국 억양으로 완전히 바꾼 듯 했고 왠지 거슬렸다. 또한 베틀은 루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았다. 더블 매트리스에서 팔다리를 마음대로 뻗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온 동생에게 차마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다. 에드워드에게는 아버지 방을 내주고 루스는 옆방에 재우고 루이자 여행 가방을 2층까지 킁킁대며 끌고 올라왔다.

루이자는 면세점에서 산 보드카를 잔 두 개에 따라 놓고 영국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다면서 조잘댔다. 거실에는 바닥까지 끌리는 새틴 커튼을 달았는데 1 야드에 25파운드나 한다, 침대 헤드보드는 벨벳으로 바꿨다, 식기세

척기로 설거지 하면 그릇이 얼마나 뽀득거리는지 모른다, 회전식 건조기가 있어서 비가와도 빨랫줄에 빨래를 걸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야만 되겠군.” 베틀이 말하며 보드카 잔을 입에 대고 훌쩍였다. 베틀은 술맛을 구분할 몰랐다. 투명한 보드카는 어린 시절에 위통약으로 먹던 성수가 생각날 뿐이었다.

“언니는 아빠 안 보고 싶어?” 루이자가 불쑥 물었다. “아빠는 언제나 우리 가족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베틀은 굳은 표정으로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난 나흘 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 팔이 육신육신 쭈셔왔다.

“아니, 나는 언니가...”

“아니 네가 무슨 말 하려는 줄 알아.” 베틀이 말했다. “아니, 나는 아빠 별로 안 보고 싶어. 아빠 말년에 점점 더 괴팍해지신 거 알아? 발에 나갔다 와서 허구한 날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하긴 그때도 아빠는 너한테만은 다정하셨으니까.”

아버지는 루이자가 집에 오면 한바탕 얼싸안고 나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애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딸을 바라보곤 했다. 베틀에게는 집에 루이자가 먹고 싶어 할지 모르니 무화과 롤빵을 항상 준비해두라고 당부하곤 했다. 루이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마음이 드는 딸이었다.

루이자는 짐을 풀면서 베틀이 보라는 뜻으로 한 벌씩 들어 올려 보였다. 치마 뒷자락에 핑크색 나비 문양이 수놓아진 린넨 드레스가 있었고 화사한 색감의 스카프와 와인색의 레이스 슬립이 있었다. 캐시미어 재킷과 가죽 오픈토 슈즈도 보여주었다. 미국산 향수병의 뚜껑을 열고 베틀에게 향기만 맡아보라고 하더니 팔목에는 한 방울도 뿌려주지 않았다. 루이자의 옷가지는 하나같이 최고급이었고 사치스러운 느낌이 났다. 바느질이 탄탄했고 안감은 실크였고 신발 깔창까지 모두 가죽이었다. 루이자는 자기가 고른 물건에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하기가 옛날부터 루이자는 패션에 목숨을 걸던 아이였으니까.

루이자가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킬라이⁷의 한 부잣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었다. 베티는 동생과 하루를 보내기 위해 기차를 타고 더블린으로 갔다. 루이자는 역에서 양장 차림에 진갈색 핸드백을 맨 베티를 보자마자 손에서 그 핸드백을 번개처럼 빠르게 낚아챘더라. “그 촌티나는 걸 여기까지 들고 오면 어떡해?” 그리고 아무도 보면 안 된다는 듯이 자기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 베티 가방을 넣어 버렸다.

루이자는 화장대에 앉아 옛날 라틴 성가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베티는 동생의 머리를 빗어주었다. 베티는 아직 소녀처럼 여리고 가녀린 동생의 목소리를 듣다가 거울로 비친 두 사람을 흘끗 보았다. 이 둘을 보고 자매라고 짐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터였다. 금발 머리에 에머럴드 귀걸이를 한, 나이보다 훨씬 앳되어 보이는 루이자, 갈색 머리에 투박한 농사꾼 손에, 나이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얼굴의 베티.

7) 킬라이니(Killiney), 더블린 근교의 해변가 부촌.

“아롱이 다롱이야 (chalk and cheese⁸)” 엄마는 살아 계실 적에 두 딸을 보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

에드워드는 아침으로 수란을 먹고 싶다고 했다. 이 집 큰 아들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서 모든 음식이 자기 앞에 차려질 때까지 손 까딱 안하고 기다리는 아이였다. 베티는 스토브 앞에서 포리지를 저었고 아직 원피스 잠옷 차림의 루이자는 찬장을 열고선 먹을 만한 게 있나 찾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둘째 루스가 말했다. 루스는 그 나이 여자애치고는 많이 통통한 편이었다.

세 식구 모두 무슨 행동을 하건 단순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할 줄을 몰랐다. 자리를 있는 대로 차지하고 앉아서 이것저것 주문하고 요

8) 분필과 치즈 (chalk and cheese) 비슷해보여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을 비유하는 말.

구했다. 가끔이지만 베틀이 다른 사람 집에 초대 받으면 주인의 배려에 무척 감사해하며 식사가 끝나자마자 눈치껏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돕곤 했다. 하지만 포터 가족은 이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이었던 것만 같았다.

루이자는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루스에게 주더니 자기는 먹는 등 마는 등 했다. 포크로 계란을 뒤적거리다 접시 한 쪽에 밀어 놓고 차만 한 모금 마셨다.

“너 정신이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거 같다.” 베틀이 말했다.

“그냥 이런 저런 생각하느라고.”

베틀은 무슨 생각 중이냐고 묻지는 않았다. 동생은 언제나 비밀스러운 편이었다. 학교에서 매를 맞고 와서도 집에서는 입도 뻥끗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수업시간에 잠깐 웃었다거나 떠들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혼이 났을 때도 루이자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성 안 토니오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을 고백하고 받지 않았어야 할

체벌을 받아들였다. 한번은 학교 교장이 베틀의 뺨을 때려서 코피가 난 적이 있었다. 코피가 멈추지 않자 교장은 수돗가에 가서 씻어내라고 떠밀었지만 베틀은 그 길로 들판을 가로질러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일러 바쳤다. 엄마는 딸을 앞장세워 학교로 쳐들어가 교장에게 앞으로 딸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버터 장수 빌리보다 더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버터 장수 빌리는 며칠 전에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사람이었다.) 루이자는 그런 난동을 벌인 언니를 탓했지만 베틀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편이 성인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지도 않은 잘못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고 생각했다.

일요일 아침 루이자는 베틀방 창문 십자가에 아버지가 면도할 때 쓰던 거울의 균형을 맞추어 놓고 눈썹을 완벽한 반원으로 다듬었다. 그 시간에 베틀은 소젖을 짜고 감자를 캐고 난 다음 미사 갈 준비를 했다.

성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루이자를 둘러싸

고 요란한 환영 행사를 벌였다. 이웃들이 묘지 옆에 서 있던 루이자에게 다가와 칭찬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고을까나?”

“나이 안 먹는 약이라도 먹나봐.”

“하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 연예인 아니셨나.”

“동생 참말로 미인이예요, 안 그래요 베티?”

미사가 끝나고 식료품점에 들르자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베티의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 독신남자 조 코스텔로가 통조림 칸과 냉장육 판매대 사이에 루이자를 세워 놓고 말을 붙였다.

“영화 보러 가는 거 아직도 좋아하나?”

조 코스텔로는 일자 콧수염을 기른 덩치 큰 사내로 줄무늬 재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루이자가 영국으로 가기 전에 종종 같이 자전거를 타고 극장에 가던 사이였다. 에드워드가 공구 코너에 쥐뿔을 멋대로 설치해놓고 루스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드레스 앞섬에 줄줄 흘리고 있었지만 루이자는 애들에겐 눈길도 주

지 않았다.

“바깥양반은 어디 가셨어?”조 코스텔로가 루이자에게 물었다.

“아, 일하느라고.”

“나도 잘 알지. 원래 일이란 게 끝이 없어요.”

집에 오자마자 베티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베티는 일요일을 사랑했다. 보조 주교의 성서 낭독을 듣고 이웃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온 뒤에 집에서 신문을 뒤적이면서 밤이나 땅콩이 불 위에서 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오후에는 정원을 세심히 돌보고 숲을 천천히 산책하고 돌아오는 하루였다.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휴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 싶었다.

“언니 여기서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루이자가 물었다.

“아니.” 베티는 살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루이자는 저녁 시간까지 부엌을 서성대더니 큰 길 아래에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

추러 갔다.

베티는 집에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뭘 해먹을지 고심 중이었다. 루이자는 이제까지 식비 명목의 돈을 한 푼도 내밀지 않았고 빵 한 덩이 사지 않았다. 베티는 손님 셋을 거둬 먹이지 않을 때도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루이자도 생각이 있을 테니 때가 되면 알아서 챙겨 줄 거라 짐작하고 넘어가려 했다. 루이자는 깜빡깜빡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도 잊어버리니까.

월요일은 빨래를 모아서 하는 날이었다. 포터 가족은 같은 옷을 두 번 입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양이었고 루스는 어쩐 일인지 밤마다 오줌을 싸서 매일 침대 시트를 갈아주어야 했다. 베티는 거의 아홉 살이나 된 아이가 왜 밤에 이불을 적시는지 의아했지만 아무래도 이 집 식구들에게 민감한 문제일 것 같아 루이자에게는 일체 말 하지 않았다. 라임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걸어둔 빨랫줄에 빨래가 뽁뽁하게 걸렸고 가끔 강한 바람이 불어와 옷가지들이 가로 모양으로 날릴 때면 재미있는 광경

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떤 옷들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손빨래를 했다. 빨랫감을 비눗물에 담갔다 빼면서 대체 스탠리는 언제쯤 오는 건지 궁금해 했다. 그래도 스탠리가 오면 남매를 해변에 데리고 나가 조약돌 던지기도 하고 슬래니 강으로 강꼬치 낚시도 가고 토끼 사냥도 하러 갔을 텐데. 적어도 애들은 책임져 줬을 텐데.

베티는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선 새벽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름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달콤했다. 베티는 머리를 젖소의 몸통에 대고 온기를 느끼며 춤추듯 양동이로 흘러내리는 뽀얀 우유를 바라보았다. 거위에게 사료를 주고 텃밭에서 당근과 파스닙을 파냈다. 렌스터 산은 언제나처럼 멀리서 푸른빛을 뿜어내며 장엄한 자태를 자랑했고 제비 가족은 마구간 처마에 집을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삶이었다. 안락하고 평화로운, 좋은 삶이었다.

베티가 부엌에서 무명천에 아직 딱끈한 우유를 거르고 있을 때 햇살이 잠시 사라지는가

싶더니 조 코스텔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베티?” 그가 모자를 벗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어쩐 일이에요, 조?” 베티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를 보게 되어 깜짝 놀랐다. 수송아지가 없어지거나 땅 임대료를 줄 때 외에는 집에 들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리 와 앉아요.”

그가 식탁 의자에 앉자 테이블 밑으로 팔과 다리가 짹 들어왔다. “요 며칠 날씨가 예술이에요.”

“이보다 더 좋기도 힘들지.”

베티는 차를 끓여서 조의 앞에 놓고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듄직하고 성실한 남자야. 사람을 보면 항상 모자부터 벗어 인사하고 잼병에 나이프를 찔러 넣지 않고 스푼으로 퍼내더라니까. 베티는 생각했다. 테이블 매너는 사람의 면모를 생각보다 더 많이 드러내는 법이다. 두 사람이 소와 채석장을 화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 때 에드워드가 나타나 싱크대에 있는 거름기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여기 우유는 살균 안 해요, 베티 이모?”

그 말에 베티와 조 코스텔로는 동시에 웃음을 터트렸다. 그때 루이자가 내려왔고 그 즉시 조는 베티에게 흥미를 잃었다. 오늘 아침 루이자는 잠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머리를 곱게 빗고 뒷자락에 나비가 그려진 린넨 드레스를 입었고 입술은 립글로스를 발랐는지 반짝거렸다.

“어머, 조가 와 있었네.” 루이자는 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처럼 말했다.

“루이자는 잘 지냈나.” 그가 일어났다.

베티는 안 봐도 눈에 흰했다. 루이자가 펼치는 유혹의 기술을. 입술은 새초롬하게 내밀고 엉덩이는 한 쪽으로 비틀고 드러난 어깨를 살짝 들었다가 우아하게 내린다. 한 폭의 그림이 아닐 수 없다. 베티는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을 두고 정원으로 걸어 내려가 파슬리나 찾아보기로 했다. 루스는 나무 아래 서서 자두를 따먹고 있었다.

“그 자두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알았어요. 알았어.” 루스가 대답했다. “별

것도 아닌데. 이모 잔소리 쟁이.”

“그건 이모가 잼 만들 거란 말이야. 이 욕심 꾸러기 꼬맹이야.”

오랜 역사가 있는 이야기였다. 남자들은 언제나 나방처럼 루이자 주변에 모여들어 관심을 구걸한다. 어렸을 때 루이자와 베티는 이웃 집에서 열린 댄스파티에 간 적이 있었다. 베티는 그 싱그러운 여름밤, 집에서 1마일 남짓 떨어진 데이비스네 집의 원목 벤치에 앉아 있던 순간을 기억한다. 베티는 손가락으로 벤치의 나뭇결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는 냇가 옆에 핀 라일락 향기가 훅 들어왔다. 그 순간의 소박한 행복이 동생이 자신에게 몸을 기댔을 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것도 또한 기억한다. 동생에게 들었던 말을 이날 이 때까지도 토씨 하나까지도 기억한다.

“언니, 내가 언니한테 충고 하나만 해줄까? 언니는 웬만하면 웃지 마. 웃으면 완전 못난이 되는 거 알지?”

그 날 이후 수년 동안, 베티는 꼭 동생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해도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지

않았다. 베티는 루이자의 하얀 이가 눈부시게 빛나는 미소를 절대 가질 수 없었다. 어렸을 때 기관지염을 앓다가 먹은 감기 시럽 때문에 치아 몇 개가 부식되어 버린 것이다. 서운하고 서글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베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모두 지나간 일일 뿐이다. 베티는 이제 자기 먼저 생각할 수 있었다. 자기가 누릴 권리를 스스로 얻어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베티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눈도 아니고 동생의 눈도 아닌,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베티가 파슬리 한 묶음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조 코스텔로는 베티가 가장 아끼는 찻잔을 꺼내 루이자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다.

“그만, 이라고 말 하시고.”

“그만.” 루이자가 애교 있게 말했다. 루이자는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서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아 있었고 태양은 동생의 금발 머리를 황금 빛으로 물들였다.

베티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양다리 요리를 했다. 큰 접시 위에서 고기 덩이를 저미는데 아직 덜 익었는지 피가 살짝 새어나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했다. 당근은 너무 오래 삶아 고무처럼 질겼지만 역시 그러거나 말거나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식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베티는 각자의 입맛에 맞춰 요리를 해줄 기분이 아니었다. 조금 전에는 거실에 갔다가 루스가 소파 위에서 뛰고 있는 걸 보고 한 마디 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사방에 날리는 개털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온통 개털 천지였다.

에드워드는 혼자 어슬렁거리다 기척도 없이 베티가 일하고 있는 방에 들어와 사람을 기겁하게 했다. 당최 혼자 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애였다.

“심심해요. 할 일도 없고.” 조카가 투덜거렸다. “완전 갇힌 신세잖아요.”

“정 그렇게 심심하면 닭장 청소라도 하지 그러니?” 베티가 말했다. “헛간에 갈퀴삽 있어.”

하지만 어떤 일인지 에드워드는 닭장 청소가 그다지 끌리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몸을 움직여야 입맛이 생긴다는 걸 통 모르는 아이였다. 루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정원을 혼자 뛰어다녔다. 가끔은 둘째가 안쓰러웠는데 루이자는 딸을 거의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아홉 살이었다. 베티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루스에게 ‘헨젤과 그레텔’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이 아빠는 자기애들을 버렸어요?” 루스가 물었다.

“실수로 그런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몇 가지 실수는 하는 거야.”

베티는 잼을 만들기로 했다. 사다리를 마당으로 꺼내 자두나무에 세워두고 가지에 손을 뻗어 자두 열매를 남김없이 따다. 자두를 세척하고 씨를 제거한 다음에 설탕에 재워 저장팬에 담아 놓은 다음에 루스와 에드워드에게 잼향아리를 어떻게 소독하는지 보여주었다. 애들은 집안일에 대해선 기본 중에 기본도 몰랐다. 에드워드가 페어리 주방 세제를 싱크대에

쏟아 버려서 병 세척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

“그런데 집에서는 누가 설거지해?” 베틀이 물었다. “아, 맞아. 집에 식기 세척기 있다고 했지. 듣고서도 잊어버렸네.”

“식기 세척기요? 이모, 우리 집에 식기 세척기 없어요.” 루스가 말했다.

셋이 같이 잼을 만들고 베틀은 잼향아리를 식료품 창고에 탄약들처럼 가지런히 정렬시켜 두었다. 이 정도면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는데 루이자가 그날의 동네 마실을 마치고 부엌에 입장했다. 불이 발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고 피부는 소금기 있는 바닷물에서 방금 수영 하고 나온 사람처럼 광채가 났다.

“편지 온 거 없어?” 동생이 물었다.

“없어.”

“아무 것도 안 왔어?”

“전기세 고지서 하나 왔네.”

“아.”

스탠리에게서는 연락 한번 없이 7월이 지나 갔다.

8월이 되자 날씨는 험상궂어졌다. 며칠째 종일 비가 내려 포터 가족은 집안에 머물렀고 대체로 각자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젖은 나뭇잎들이 창유리에 달라붙고 빗물은 흙탕물이 되어 텃밭 사이로 흘러내렸다. 루이자는 침대에서 잠옷차림으로 로맨스 소설을 읽고 케이크를 먹으며 정오가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잠옷 바람으로 돌아다녔다. 빗물로 머리를 감고 아이들에게는 라이스 크리스피 번을 구워주기도 했다. 에드워드는 거실에서 플룻을 불었다. 베틀은 악기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난생 처음 알았다. 뒷에 걸린 야생 조류나 우리에게 갇힌 작은 파충류가 자유를 달라며 킁킁거릴 때 내는 듯한 소리였다. 루스는 베틀의 잘 드는 재단용 가위로 패션 잡지에서 모델 사진이나 향수 사진을 오려서 스크랩북에 붙이며 놀았다.

베틀은 자식처럼 아끼던 정원 때문에 애가 났다. 세찬 비바람 때문에 장미 나무 가지가 흔들려 장미꽃들이 자갈 위로 우수수 떨어져 버린 것이다. 베틀은 장미꽃 송이를 주워 안쓰

러운 마음으로 피부처럼 보드라운 분홍색 꽃
잎들을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쓰다듬어 보았
다. 앞에는 진땀물이 느리게 기어 다녔다. 그간
집안 살림하고 식구들 끼니를 챙겨주느라 바
빠 정원 관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었다.

베틀이 꽃들의 애처로운 운명을 슬퍼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에드워드가 다가왔다.
덧나무 꽃송이들이 바람에 색종이 조각처럼
날렸다. 조각난 회색 구름이 낀 하늘에서 보슬
비가 몇 방울씩 떨어졌다.

“베틀 이모.”

“응?”

“이모 돌아가시면요. 이 집과 땅은 누가 물
려받아요?”

베틀이 충격으로 어안이 병병했다. 마치 말
로 뺨을 한 대 세계 맞은 것만 같았다.

“아니, 내가 왜...그게 무슨...” 입이 채 떨어
지지도 않았다.

에드워드는 그 자리에 서서 베틀을 똑바로
응시했다. 베틀이 땀을 흘려가며 겨우 다림질
한 린넨 바지를 입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

아져 조카에게서 몇 발자국 물러나야만 했다.

“너 집에 들어가. 니네 엄마나 도와줘!” 베틀이
가 버럭 소리 질렀지만 조카는 꿈쩍도 하지
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베틀의 눈을 뵈히 바
라볼 뿐이었다. 조카의 파란 눈은 길고 가늘
었다. 베틀은 뒤를 돌아 엉망이 된 정원을 밟
고 지나간 다음 큰 길을 따라 내려가 숲속으로
들어갔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외진 장소에 숨었
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밑, 축축한 이끼가
갈린 바위 위에 한 동안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베틀은 눈
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지난 기억들이 붓
물 터지듯 한꺼번에 밀려왔다. 크리스마스 시
즌에 혼자 칠면조 목을 비틀던 자기 모습, 그
때 다리 밑에 수북이 쌓여 가던 회갈색 깃털
들, 어린 시절 불가에서 손을 잠깐만 쬐고 다
시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엄마가 했던 “언제나
씩씩한 우리 큰 딸” 이란 말, 목초지에 갔다 황
망하게 떠나버린 야속한 엄마, 관속에 누운 엄
마의 손가락에 얽혀 있던 목주 팔찌, 회색 정

장 차림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 얼마 후 능력 있는 남편과 돌아왔던 루이자, 세례복을 입은 아기들 사진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마지않던 첫째 손자. 그리고 어느 가을 산사나무 아래에서 마치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베틀을 양팔로 꼭 끌어안고 있던 시릴 도우를 기억했다. 베틀이 걸려 넘어지더라도 할까봐 몸을 숙여 발밑의 돌을 주워주던 다정한 사람. 평생 동안 그녀는 묵묵히 일만 했다.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다. 그런데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아버지가 성질을 못 이겨 냅다 던져 버린 차이나 접시 조각을 허리를 숙여 줍고 있던 처량한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그 신세가 되는 건가? 깨진 접시 조각이나 줍고 있는 여자가?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 건가?

이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 보였다. 베틀이 엄마 자리를 대신한 것처럼 에드워드는 자기가 베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인이 살아 있는 한 상속이 갱신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성적인 생각은 자

신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다. 베틀은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셈이었다.

해가 기울어 사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나무 사이를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향했다. 루이자 가족이 떠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 보았다. 이 주 후반 애들 학교가 개학을 할 거야. 9월이 빨리 와라. 그 날이 오면 늦잠을 싹껏 자고 라디오를 맘껏 듣고 개털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만 해먹을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저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애들이 우리 집에 어슬렁거리지 않을 거야.

베틀이 집에 도착했을 때 루이자는 거실에 파란색 천을 펼쳐 놓고 베틀이 칼을 갈 때 쓰는 줄칼로 재단 가위를 갈고 있었다.

“화장실에 새 커튼 만들어 걸면 어떨까 싶어서. 언니가 걸어둔 건 너무 올드해.” 베틀은 가위를 원단 끝에 대고 자르기 시작했다.

“니 마음대로 하던가.” 베틀은 대충 대꾸하

고 이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다.

8월 중순까지도 날이 맑아질 기미가 안 보였다. 묵직한 회색 구름이 양피지처럼 하늘에 음울하게 덮여 있었다. 비오는 밤이면 문 밑에서 개구리가 기어 다녔다. 베티는 빨래를 도저히 말릴 방도가 없었다. 스토브 위에 건조대를 매달기도 하고 거실 벽난로에 불도 피워 보았지만 연기가 실내로 들어와 방안에 시커먼 연기만 가득 찼다. 베티는 열심히 씨 뿌리고 정성스레 키웠던 진홍색 꽃에서 벌들이 꽃가루를 훔쳐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하루하루 날짜만 썼다.

하루는 보험 회사 다니는 이웃남자의 차를 얻어 타고 시내에 가서 은행에서 잔고를 확인했다. 8월과 9월분 생활비는 이미 바닥나고 없었다. 10월 생활비를 인출해와 식비를 어떻게 아껴야 할지 머리를 굴려 보았다.

어느 날 저녁 베티는 차와 곁들이기 위해 팬케이크를 구웠고 기름이 식기 건조대 위로 조

금씩 튀었다. 애들은 마당에 나가 놀고 있었다. 현관 문 앞에서 거위 새끼들이 어미 거위를 따라가려고 종종 거렸는데 다리가 짧아 못 따라갔다. 그러다 거위새끼들이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버둥거렸다. 루스와 애드워드가 긴 나뭇가지로 새끼들을 뒤집으려 하자 어미 거위가 쇠쇠거리고 날개를 펴리며 애들을 쫓아갔다.

루이자느 어깨에 담요를 걸치고 스토브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나저나 스탠리는 언제 오는 거야?” 베티는 가스 오븐에서 에나멜 접시를 꺼내며 물었다.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은 거야,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애들 2주 후에는 개학하지 않아?”

“응. 맞아.”

“그런데?”

“그런데 뭘?”

“아빠가 애들 가기 전에는 와야 되는 거 아

닌가?” 베티는 자기도 모르게 팬에 팬케이크 반죽을 너무 많이 부어버렸다.

“나도 모르지.”

베티는 반죽의 가장자리가 익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언제 뒤집을 지 지켜보았다. “너 스탠리랑 헤어졌지?”

“팬케이크 냄새 근사하다. 맛있겠다.”

“너 애들 데리고 집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놀러 살 궁리 하고 있지?”

“언니, 내가 식탁 차릴까?”

“너 여기 온 다음 처음으로 그 말 한 거 알아?” 베티는 몸을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랬나? 에드워드! 루스! 애들아 어서 와서 간식에 차 마시자!”

“루이자!”

“나도 이 집에 있을 권리 있잖아. 아빠의 유언이었다고.”

루스가 들어왔다.

“손부터 씻어.” 루이자가 말했다.

“엄마, 난 준비 다 된 줄 알았잖아.” 루스는 빈 접시를 바라보았다.

“금방 될 거야, 우리 아가, 조금만 기다려.”

루이자는 그날 저녁 부엌에서 일찍 나갔다. 응접실 벽난로에 불을 작게 피워 놓고 큼지막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전쟁과 평화>의 첫 장을 폈다. 베티는 나가서 우유를 짰다. 그때 이상하면서도 마음을 단번에 안정시키는 어떤 확신이 베티에게 찾아왔다. 이제야 이야기의 앞뒤가 맞으며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베티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루이자는 이미 목욕을 마친 모양이었다. 베티에게 등을 보인 채 벽난로 앞에 앉아서 목에 콜드크림을 치덕치덕 바르는 중이었다. 감은 머리는 수건으로 터번처럼 올렸다. 벽난로 선반 위에 보드카가 채워진 잔 두개가 있었다.

“애들은 자?”

“응.” 루이자가 말했다.

루이자는 화해를 제안하듯이 베티에게 보드카 잔을 내밀었다. 남아 있던 한 조각 저녁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매는 말없이 술을 홀

짜였다.

“아 참, 내가 머리 빗겨줄게.” 베틀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한 후 빗을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갔다. 베틀이 내려왔을 때 루이자는 아직도 벽난로 선반 위에 달린 거울을 보고 있었다.

베틀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고 루이자의 머리에서 수건을 벗긴 다음 엉클어진 머리를 풀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오는 머리에서는 희한하게도 양치식물과 과일향이 났다.

“고급 샴푸 쓰네.”

“당연하지.”

프렌치 창문 사이로 달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바로 위 큰 방에서 자는 에드워드의 코고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베틀은 가는 빗으로 동생의 촉촉한 금발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 내렸다.

“옛날 생각난다, 언니야. 난 가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언니는 안 그래?”

“아니. 나는 옛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살았을 테니까.” 베틀이 말했다.

“그래, 언니는 영리하니까.”

“영리해?”

“우리 불쌍한 베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네. 그래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너야말로 안 그랬니? 남편도 있고, 애들에, 멋진 집에. 아버지 모시는 거 보통 일 아니었어.”

침묵이 흘렀다. 방은 참기 힘들 정도로 고요해졌다. 베틀은 그 동안 너무 바빠서 할아버지 시계를 돌려놓는 것도 잊어 초침 소리마저 안 들렸다. 겨울 느낌이 실린 싸늘한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새틴 커튼 같은 거 없으면서.” 베틀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식기세척기하고 건조기도 없잖아. 다 지어낸 이야기잖아.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루이자는 대꾸를 하면서도 벽난로 선반 위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감상 중이었다. 마치 약에 취한 사람 같은 몽롱한 눈을 거울

속 자기 얼굴에서 떼지 못했다. 거울 속에서도 베티의 눈을 마주치기 싫었는지 일부러 피했다. 루이자는 언니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 조카들에게 보냈던 용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마당으로 양동이를 몇백 번을 옮겨야 했는지, 결혼의 기회를 어떻게 날려 버렸는지 묻지 않았다. 밭에 똥을 뿌리며 살아온 세월을,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팬티를 빨아온 날들에 관심 하나 준 적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를 제 집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베티의 구역에 기어 들어와서 죽은 날까지 언니를 자기와 자기애들의 노예로 부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베티는 앞치마 주머니에 스르륵 손을 넣었다. 아마 그 순간 루이자가 목 뒤로 차가운 감촉을 살짝 느꼈다 해도 별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날을 갈았던 금속 물건이 반짝 날카롭게 빛을 내긴 했지만 역시 보지 못했다. 베티는 가위를 손에 들고 단번에 잘라 버렸다. 전부 다 자르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베티의 손힘이 어지간히 썩

기 때문이다. 루이자가 드디어 뭔가 달라진 걸 느끼고 카펫 위로 쏟아진 한 뭉치의 머리카락을 보았을 때까지도 베티는 손에 여전히 가위를 들고 있었다.

루이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받은 틀린 말을 황설수설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니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다느니, 이 큰 집을 혼자 차지하려 하다니 양심도 없다느니,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느니. 베티는 듣고 있지도 않았다.

루이자는 울었다. 밤새 울고 또 울었다. 짐을 쌀 때도 아침에 아이들과 개를 앞세우고 집 밖으로 나갈 때도 영영 울고 있었다. 베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가에 기대서서 맑게 갠 파란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그 못난이 웃음을 지어줄 뿐이었다.

머리카락이 없는 루이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It is customary for the Porters to send a postcard to say when they will be arriving. Betty waits. Each time the dog barks she finds herself going to the window at the foot of the stairs, looking out through the maidenhair fern to see if the postman is cycling up the avenue. It is almost June. The chill has slackened off; plums are getting plumper on the trees. The Porters will soon come, demanding strange foods, fresh handkerchiefs, hot-water bottles, ice.

Louisa, Betty's sister, went away to England when she was young and married Stanley Porter, a salesman who fell for her, he said, because of the way her hair fell down her back. Louisa always had beautiful hair. When they were young, Betty brushed it every night, one hundred strokes, and secured the gold braid with a piece of satin ribbon.

Betty's own hair is, and always has been, an unremarkable brown. Her hands were always her best feature, white, lady-like

hands that played the organ on Sundays. Now, after years of work, her hands are ruined, the skin on her palms is hard and masculine, the knuckles enlarged; her mother's wedding band cannot be removed.

Betty lives in the homestead, the big house, as it is called. It once belonged to a Protestant landlord who sold up and moved away after a childless marriage ended. The Land Commission, who bought the estate, knocked down the three-storey section of the house and sold the remaining two-storey servants' quarters and the surrounding seventy acres to Betty's father for a small sum when he married. The house looks too small for the garden and too close to the yard, but its ivy-covered walls look handsome nonetheless. The granite archway leads to a yard with stables, a barn and lofty sheds, coach houses, kennels and a spout-house. There's a fine walled orchard at the back in which the landlord grazed an Angus bull to keep the children out, seeing as he had none of his own. The place has a history, a past. People said Parnell had a tooth pulled in the parlour. The big kitchen has a barred window, an Aga and the deal table Betty scrubs on Saturdays. The white, marble fireplace in the parlour suits the mahogany furniture. A

staircase curves on to a well-lighted landing with oak doors opening into three large bedrooms overlooking the yard, and a bathroom Betty had plumbed in when her father became ill.

Betty, too, had wanted to go to England, but she stayed back to keep house. Their mother died suddenly when Betty and Louisa were small. She went out to gather wood one afternoon and dropped dead coming back through the meadow. It seemed natural for Betty, being the eldest, to step into her mother's shoes and mind her father, a humoursome man given to violent fits of temper. She hadn't an easy life. There were cattle to be herded and tested, pigs to fatten, turkeys to be sent off on the train to Dublin before Christmas. They cut the meadow in summer and harvested a field of oats in autumn.

Her father gave instructions and did less and less, paid a man to come in and do the hardest work. He criticised the veterinary bills, insulted the priest who came to anoint him when he was ill, belittled Betty's cooking and claimed that nothing was as it should have been. Nothing was the way it used to be, he meant. He hated change. Towards the end he'd put on his black overcoat

and walk the fields, seeing how tall the grass was in the meadow, counting the grains of corn on the stalks, noting the thinness of a cow or the rust on a gate. Then he would come inside just before dark and say, "Not much time left. Not much time."

"Don't be morbid," Betty used to answer, and continued on; but last winter her father took to his bed, and for the three days preceding his death he lay there roaring and kicking his feet, calling for "Buttermilk! Buttermilk!" When he died on a Tuesday night, by willing himself to die, Betty was more relieved than sorry.

Betty kept track of Louisa's progress through the years; her wedding, which she did not attend, the birth of her children, one boy and one girl, what Louisa had wanted. She sent a fruit cake through the post every Christmas, home-made fudge at Easter, and remembered the children's birthdays, put pound notes she could not spare in cards.

Betty had been too busy for marriage. She had once walked out with a young Protestant man named Cyril Dawe her father disapproved of. Nothing ever came of it. The time for marriage and children passed for Betty. She became used to attending to her father's needs in the big house, quelling

his temper, making his strong tea, ironing his shirts and polishing his good shoes on a Saturday night.

After his death she managed to live by renting out the land and cautiously spending the savings her father had left in the Allied Irish Bank. She was fifty years old. The house was hers, but a clause was put in her father's will that gave Louisa right of residence for the duration of her lifetime. Her father had always favoured Louisa. She had given him the admiration he needed, whereas Betty only fed and clothed and pacified him.

When June passes without word from the Porters, Betty becomes uneasy. She pictures the lettuce and the scallions rotting in the vegetable patch, toys with the notion of renting a guest house by the sea, of going off to Ballymoney or Cahore Point; but in her heart she knows she won't. She never goes anywhere. All she ever does is cook and clean and milk the cow she keeps for the house, attends mass on Sundays. But she likes it this way, likes having the house to herself, knowing things are as she left them.

An overwhelming sense of freedom has accompanied the days since her father's death. She pulls weeds, keeps the gardens

tidy, goes out with the scateurs on Saturdays to cut flowers for the altar. She does the things she never had time to do before: she crochets, blues the lace curtains, replaces the bulb in the Sacred Heart lamp, scrapes the moss off the horse trough and paints the archway gate. She can make jam later on when the fruit ripens. She can pit the potatoes and pickle the tomatoes in the greenhouse. Nothing, really, will go to waste if the Porters do not come. She is getting used to this idea of living through the summer alone, is humming a tune softly and weighing candied peel on the scales, when the postman wheels the bicycle up to the door.

“They’re coming on the ninth off the evening ferry, Miss Elizabeth,” he says. “They’re coming as far as Enniscorthy on the bus. You’ll have to send a car.” He puts the card on the dresser and slides the kettle over on the hot plate to make himself some tea. “Not a bad day.”

Betty nods. She has only four days to get the house ready. They could have given her more notice. It seems strange, their not bringing the car, Stanley’s big company car that he always takes such pride in.

The next morning she throws out her fa-

ther’s old vests she’s used as dusters, carries the empty stout bottles up the wood and dumps them under the bushes. She takes out rugs and beats them with more vigour than is necessary, raises a flurry of dust. She hides old bedspreads at the back of the wardrobe, turns the mattresses and puts the good sheets on the beds. She always keeps good bed-linen in case she’ll get sick and she wouldn’t want the doctor or the priest saying her sheets are patched. She takes all the cracked and chipped plates off the dresser and arranges the good willow-pattern dinner set on the shelves. She orders bags of flour and sugar and wheaten meal from the grocer, gets down on her knees and polishes the floor until it shines.

They arrive in the avenue on a hot Friday evening. Betty takes off her apron when the taxi beeps the horn and rushes out into the avenue to greet them.

“Oh Betty!” Louisa says, as if she’s surprised to see her there.

She embraces Louisa, who looks as young as ever in her white summer two-piece, her hair hanging in gold waves down her back. Her bare arms are brown with the sun.

Her son, Edward, has grown tall and lanky, a hidden young man who prefers to stay indoors; he extends a cold palm, which Betty shakes. There is little feeling in his handshake. The girl, Ruth, skips down to the old tennis court without so much as a word of hello.

“Come back here and kiss your Aunt Betty!” Louisa screams.

“Where’s Stanley?”

“Oh he’s busy, had to work, you know,” Louisa says. “He may follow on later.”

“Well, you’re looking great, as usual.”

Louisa’s prominent white teeth are too plentiful for her smile. She accepts but does not return the compliment. The taxi-man is taking suitcases off the roof-rack. There is an awful lot of luggage. They’ve brought a black Labrador and books and pillows and wellingtons, a flute, raincoats, a chessboard and woolly jumpers.

“We brought cheese,” Louisa says, and hands Betty a slab of pungent Cheddar.

“How thoughtful,” Betty says, and sniffs it.

Louisa stands at the front gates and gazes out towards Mount Leinster with its ever-lighted mast, and the lush deciduous forest in the valley.

“Oh, Betty,” she says, “it’s so lovely to

be home.”

“Come on in.”

Betty has the table set; two kettles stand boiling on the Aga, their spouts expelling pouty little breaths of steam. A pool of evening sunlight falls through the barred window over the cold roast chickens and potato salad.

“Poor Coventry was put in a cage for the entire journey,” Louisa says, referring to the dog. He has slumped down in front of the dresser and Betty has to slide him across the lino to get the cupboard doors open.

“Any beetroot, Aunt Elizabeth?” Edward asks.

Betty has taken great care washing the lettuce but now finds herself hoping an earwig won’t crawl out of the salad bowl. Her eyesight isn’t what it used to be. She scalds the teapot and cuts a loaf of brown bread into thin, dainty slices.

“I need the toilet!” Ruth announces.

“Take your elbows off the table,” Louisa instructs, and removes a hair from the butter dish.

There is too much pepper in the salad dressing and the rhubarb tart could have used more sugar, but all that’s left is a few potato skins, chicken bones, greasy dishes.

When evening falls, Louisa says she'd like to sleep with Betty.

"It'll be like old times," she says. "You can brush my hair."

She has developed an English accent, which Betty doesn't care for. Betty does not want Louisa in her bed. She likes being sprawled out on her double mattress, waking and sleeping when she feels like it, but she can't say no. She puts Edward in her father's room and Ruth in the other and helps Louisa drag her luggage up the stairs.

Louisa pours two measures of duty-free vodka into glasses and talks about the improvements she has made to the house in England Betty has never seen. She describes the satin floor-length curtains in the living room, which cost £25 a yard, the velvet headboards, the dishwasher that sterilises the dishes and the tumble dryer that means she doesn't have to race out to the line every time a drop of rain falls.

"No wonder Stanley's working," Betty says, and sips the vodka. She doesn't care for the taste; it reminds her of the holy water she drank as a child, thinking it would cure her stomach aches.

"Don't you miss Daddy?" Louisa says suddenly. "He always had such a warm

welcome for us."

Betty gives her a straight look, feels the ache in her arms after the four days' work.

"Oh. I don't mean you –"

"I know what you mean," Betty says. "No, I don't really miss him. He was so contrary towards the end. Going out to the fields and talking about death. But then, you brought out the sweeter side of him."

Her father used to hold Louisa in a tight embrace when she arrived home, then stood back to look at her. He used to tell Betty to keep fig rolls in the house because she had a taste for figs. Nothing was ever too good for Louisa.

Now she unpacks her clothes, holding them up for Betty to admire. There's a linen dress with pink butterflies swooping towards the tail, a glittery scarf, a burgundy lace slip, a cashmere jacket, leather peep-toe shoes. She takes the cap off a bottle of American perfume and holds it out for Betty to sniff, but she does not spray a sample on her wrist. Louisa's clothes have the luxurious feel of money. The hems are deep, the linings satin, her shoes have leather insoles. She takes a covetous pride in her belongings, but then Louisa has always been the fashionable one.

Before she went to England Louisa got a

job housekeeping for a rich woman in Killiney. Once, Betty took the train to Dublin to spend a day with her. When Louisa saw her at Heuston station with her country suit and her brown handbag, she whipped the handbag from her hands, fast as greased lightning, and said,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with that old thing?" and pushed it down in her shopping bag.

Now she sits at the dressing table, singing an old Latin hymn while Betty brushes her hair. Betty listens to her girlish voice and, catching a glimpse of their reflection in the mirror, realises that nobody would ever suspect they were sisters. Louisa with her gold hair and emerald earrings, looking so much younger than her years: Betty with her brown hair and her man's hands and the age showing so plainly on her face.

"Chalk and cheese" was the phrase their mother used.

Edward wants a poached egg for breakfast. He sits at the head of the table and waits for it to be put in front of him. Betty stands at the Aga stirring porridge while Louisa, still in her nightdress, looks into the cupboards, inspecting their contents, seeing what there

is to eat.

"I'm starving!" Ruth says. She's plump for a girl of her age.

None of them do anything simply or quietly; they don't mind taking up space, asking for more of this or that. On those rare occasions when Betty goes into anyone's house, she is thankful for what she gets and washes the dishes afterwards; but the Porters act like they own the place.

Louisa makes cheese on toast for Ruth but eats little herself. She just pushes her eggs around her plate with a fork and sips her tea.

"You're miles away," Betty says.

"Just thinking."

Betty does not press her: Louisa has always been secretive. When she was beaten in school, she never said one word at home. Being falsely blamed for laughing or talking out of turn, Louisa would blankly kneel down in front of the picture of Saint Anthony and confess and take undue punishment without ever a mention. Once, after the headmaster hit Betty, her nose would not stop bleeding and he sent her out to the stream to wash her face, but she ran home across the fields and told her mother, who walked her back up to the school, into the classroom, and

told the headmaster that if he laid so much as another finger on her girls, he'd get a worse death than Billy the Buttermaker (who had been savagely murdered down south a few days back). Louisa had jeered her about that, but Betty was unashamed. She would rather tell the truth and face the consequences than get down on her knees before a picture of a saint and confess to things she did not do.

On Sunday morning, Louisa balances their father's old shaving mirror on the crucifix in Betty's window and plucks her eyebrows into perfect semi-circles. Betty milks the cow and digs potatoes and gets ready for mass.

A great fuss is made over Louisa in the chapel. Neighbours come up to her in the graveyard and shake her hand, and say she's looking wonderful.

"Aren't you looking great?"

"You haven't aged one bit."

"Sure weren't you always the apple of everybody's eye?"

"Doesn't she look great, Betty?"

When they go into the grocer's for messages, Joe Costello, the bachelor who owns the quarry and rents out Betty's land, corners Louisa between the tinned goods and the cold meats counter and asks is

she still fond of the cinema? He's a great big man with a pinstripe suit and a black, pencil moustache. They used to cycle to the pictures together before Louisa went off to England. Edward is setting mousetraps in the hardware shelves and Ruth's ice-cream cone is dripping down the front of her dress, but Louisa takes no notice.

"Where's the hubby?" Joe Costello is asking Louisa.

"Oh, he had to work."

"Ah yes, I know the feeling. The work never ends."

When they get home, Betty ties her apron round her waist and puts the dinner on. She likes Sundays, listening to the curate read the gospel, meeting the neighbours, listening to the spit of the roast while she reads the paper, tending the garden in the afternoon and taking a walk around the wood. She always tries to keep it a day of rest, keep it holy.

"Don't you ever get lonely up here on your own?" Louisa asks.

"No." It had never occurred to her to be lonely.

Louisa paces the kitchen floor until dinner time, then takes off down the avenue to visit the neighbours' houses. Betty stays at

home and works out a menu for the week. Louisa hasn't given her a penny towards their keep, hasn't bought so much as a loaf. Betty's budget is tight enough without feeding three extra people, but she assumes it's something Louisa will put right when it comes into her mind. Louisa has always been forgetful about the essentials.

Monday is washing day. The Porters don't believe in wearing the same clothes twice, and since Ruth wets the bed, she needs clean sheets every day. Betty wonders at the child – she's almost nine years old – but says nothing to Louisa, sensing it would be a sore point. The clothes-line hanging between the lime trees is laden, but a strong wind throws the laundry into a horizontal flapping state that Betty finds pleasurable. Some of the clothes are delicate and Betty must wash them by hand. As she dips her hands down into the sinkful of soapy water, she begins to wonder when Stanley will arrive. He would take them off to the seaside and skim pebbles across the waves and keep the children occupied. Go fishing for pike in the Slaney, shoot rabbits.

Betty rises earlier to have more time to herself. The summer mornings feel healthy and cool. She sits with her head leant against

the warmth of the cow's side and watches milk dancing in the bucket. She feeds the geese and pulls carrots and parsnips from the vegetable patch. Mount Leinster looks gratifyingly unchanged in the blue distance; swallows are building under the eaves of the granite stables. This is the life she wants to lead, the good life.

She is pouring warm milk through a piece of muslin when Joe Costello blocks the daylight in the doorway.

"Morning, Betty." He tips his hat respectfully.

"Good morning, Joe!" She's surprised to see him, he so seldom drops in, except when a bullock goes missing or to pay the rent on the land.

"Sit down, won't you?"

He sits in at the table, all arms and legs. "Nice spell of weather we're having."

"Couldn't ask for nicer."

She makes tea and sits talking to Joe at the table. He's a decent sort of man, Betty thinks, the way he takes his hat off and uses the spoon for the jam instead of pushing his knife down into the pot. Table manners say so much. They talk about cattle and the quarry and then Edward appears, pokes his nose into the implements on the sink.

“Isn’t the milk here pasteurised, Aunt Betty?”

Betty laughs with Joe Costello over the good of it, but when Louisa comes down Joe loses all interest in Betty. Louisa isn’t wearing her nightdress. Her hair is brushed and she’s in her linen butterfly dress, her mouth shiny with Vaseline.

“Ah, Joe!” she says, as if she didn’t know he was there.

“Morning, Louisa.” He stands up, as if she’s the Queen.

Betty takes it all in, how Louisa flirts: the pout of her lips, the tilt of her hip, the way she lifts and relaxes her bare shoulder. It is a fine art. She leaves them there talking in the kitchen and strides out to the garden for parsley. Ruth is standing under the tree, eating her plums.

“Get away from those plums!”

“Okay, okay,” Ruth says. “Don’t get your knickers in a knot.”

“They’re for jam.”

It is an old story. The men flocking round Louisa, sniffing her out, always asking her to dance in the old days.

Louisa and Betty had gone to house-dances together when they were young. Betty remembers a fine summer’s night, sitting

on a wooden bench in Davis’s, just a mile up the road. She was sitting there feeling the grain of the wood under her fingers. The scent of lilacs from the ditch came through the open window. She remembers the happiness of that moment being broken when Louisa leaned over. She can still, to this day, remember her exact words:

“I’ll give you a piece of advice. You should try not to smile. You look terrible when you smile.”

Betty didn’t smile for years afterwards without remembering this remark. She never had Louisa’s white smile. She’d suffered from bronchitis as a child and had to take cough medicine, which ruined her teeth. So many things, all coming back. Betty feels her blood racing when she has such memories. But that is all in the past. She can think for herself now. She has earned that right. Her father is dead. She can see things as they are, not through his eyes, nor Louisa’s.

When she comes back into the kitchen with sprigs of parsley, Joe Costello is pouring tea into her best china cup for Louisa.

“Say when.”

“When,” Louisa says. She is sitting with her back to the harsh morning light, the sun intensifying the gold of her hair.

Betty cooks a leg of lamb the following Sunday. When a trickle of blood runs out on the serving plate while she is carving, she doesn't care. Nor does she care that the carrots are rubbery and overcooked, but nobody makes any mention of the meal, not one word. She's in no mood to cater for individual tastes. Earlier she had gone down into the parlour and caught Ruth jumping on the armchair. What's more, there are dog hairs all over the house. Everywhere she looks, dog hairs.

Edward hangs around, silently entering the rooms in which she's working and startles her. He cannot entertain himself.

"There's nothing to do," he complains. "We're stranded."

"You can clean out the hen house if you like," Betty says. "The sprong's in the barn."

But somehow this does not appeal to Edward. He's not a fellow who believes in earning his appetite. Ruth sings and skips around the garden. Betty feels sorry for her sometimes: Louisa pays her little or no attention and she needs some at her age. So when Betty is finished washing the blood-stained dishes, she reads her *Hansel and Gretel*.

"Why would the father desert his own children?" Ruth asks.

Betty cannot think of an answer.

Betty makes jam, takes the step-ladder outside, reaches up into the boughs and plucks every single plum off the tree. They are her plums. She washes and stones them, covers the fruit with sugar in the preserving pan and shows Ruth and Edward how to wash the jam jars. They haven't a clue about domestic work. Edward squirts a cupful of Fairy Liquid into the sink and they have to start again.

"Who does the washing up at home?" Betty asks. "Oh, that's right: you have a dishwasher, I forgot."

"A dishwasher? No we don't, Aunt Betty," Ruth says.

They make the jam and Betty lines up the pots like ammunition in the pantry. She's wondering how long it will last, when Louisa walks into the kitchen after her day out visiting. Her expression is flushed and radiant like someone who's been swimming in deep salt waters.

"Any post?" she says.

"No."

"Nothing?"

"Just an ESB bill."

"Oh."

July has passed without a word from

Stanley.

In August the weather turns stormy. Rain keeps the Porters indoors, traps them in the rooms. Wet leaves cling to the window panes, black rainwater runs down between the drills in the vegetable patch. Louisa stays in bed reading romantic novels and eating cake, walks around in her nightdress till well past noon. She washes her hair with rainwater and makes Rice Krispie buns for the children. Edward plays the flute in the parlour. Betty has never heard anything like it; it's as if somebody has trapped a wild bird or a small reptile in a cage and its despairing little voice is crying out to be freed. Ruth cuts pictures of models and perfume out of magazines with Betty's good dressmaking scissors and pastes them in her scrapbook.

Betty becomes concerned about the garden. Strong winds have shaken the rose bushes, scattered the blooms across the gravel, and Betty, picking them up, feels sorry and strokes the dusky-pink petals, smooth as eyelids in her fingers. There are greenfly on the leaves; they are spotted and drowsy. She has been too busy with domes-

tic chores to tend her garden.

She is standing there, thinking about her poor flowers, when Edward approaches her. Elderberry blossoms are being cast about like confetti in the wind; a light drizzle is falling from a sky of fragmented, greyish cloud.

"Aunt Betty?"

"Yes?"

"Who will own this place when you die?"

She's shocked. The words are like a hard, stinging slap.

"Why? I –" She can't think of anything to say.

Edward is standing there looking at her with his hands in the pockets of his linen trousers that are almost impossible to iron. She feels the sudden threat of tears, backs away from him.

"Go inside and help your mother!" she barks, but he does not move: he just stands there looking into her eyes. His eyes are narrow and blue. She retreats, walks through the ruined garden, down the avenue, and takes refuge in the woods where she cannot be seen. She sits on a damp, mossy stone under the swaying trees for a long time, thinking.

For the first time since her father's death

she gives in to a flood of warm, salty tears. Things come back to her: she sees herself at Christmas time wringing turkeys' necks, a mound of feathers at her feet; as a child running in to warm her hands at the fire and running out again, hearing her mother say, "She's such a hardy little girl." Her mother going out to the meadow, then laid out so unexpectedly, rosary beads entwined between her fingers. She sees Louisa in a grey suit leaving on the boat to England, coming back with a wealthy husband, pictures of babies in christening robes; her father taking pride in his grandson. She remembers Cyril Dawe sitting under the hawthorn in autumn with his arms around her, holding her tight as if he was afraid she would get away. How he reached down and took a stone from under her, an act of tenderness. All her life she'd worked, she'd done the right things, but was it right? She sees herself stooping to pick up the pieces of a china plate her father broke in temper. Is this what she's become? A woman with broken plates? Is that all?

It seems to her now that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Edward thinks he'll step into her shoes, just as she stepped into her mother's. Inheritance is not renewal. More

than anything, it keeps everything the same. All that is left, all that's sensible, is to clutch on to what is hers by right. Nothing shall ever stop her.

It is getting dark. How long has she been away? She walks up between the trees. She pacifies herself by concluding tha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Louisa leaves. The children will have to be back to attend school in a fortnight's time. Come September, Betty will be able to get a good night's sleep, listen to the wireless, get rid of the dog hairs, cook when and what she likes, not have those awful children asking her what will happen when she dies.

When Betty arrives home, Louisa has spread a piece of blue cotton on the parlour floor, is putting an edge on her dressmaker's scissors with the file Betty keeps for sharpening the knives.

"I was thinking we could make some new curtains for the bathroom. Those ones you have are ancient," she says. She puts the blade to the edge of the fabric and begins to cut.

"Do as you please," Betty says, and goes upstairs to lie down.

The weather does not take up in mid-August. Huge grey clouds provide a sullen parchment overhead. Frogs crawl in under the door on rainy nights, and Betty finds it almost impossible to get the clothes dry. She hangs them on a clothes-horse round the Aga, lights the parlour fire, but a down-draught pushes black smoke into the room. She watches the bees robbing pollen from her crimson flowers outside the door, and counts the days.

She gets a lift into town with the insurance man and checks the balance in her bank account. Her money for August and September is used up. She takes money set aside for October and becomes imaginative with meals.

She is frying pancakes for tea one evening, the fat spattering lightly out on the draining board. The children are outside. The goslings have tried to follow the goose down the steps outside the front door, but their legs aren't long enough. They have fallen on their backs, their legs paddling the air. Ruth and Edward are turning them right-side-up with a long stick while the goose hisses at them and flaps her wings.

Louisa is sitting up next to the Aga with a blanket round her shoulders.

"When will Stanley be coming?" Betty asks. She takes an enamel plate from the gas oven.

"I can't say."

"You can't say or you don't know?"

"I don't know."

"The children will have to be back in school in two weeks' time."

"Yes, I know."

"Well?"

"Well what?"

"Well do you think he'll come before then?" Betty says, and accidentally pours too much pancake batter into the pan.

"I don't know."

She watches the heat dimpling the edges of the batter, wondering how she'll turn it. "You've left Stanley."

"Those pancakes smell nice."

"You've left Stanley and you think you can stay here."

"Would you like me to set the table?"

"Do you know that's the first time you've asked that since you arrived?" Betty has turned to face her.

"Is it? Edward! Ruth! Come on in for your tea!"

"Louisa!"

"I have a right to be here. It's in Dad-

dy's will."

Ruth runs in.

"Wash your hands," Louisa says.

"I thought you said it was ready?" Ruth says, staring at the empty table.

"It will be, love. Soon."

Louisa gets out of the kitchen that evening. She builds a small fire in the parlour, sits in the big armchair and starts reading *War and Peace*. Betty goes out to milk the cow. She feels a strange soothing mood of crystal clarity descend. It is all beginning to make sense. When she comes back inside, Louisa has taken a bath. She is sitting in front of the fireplace with her back to Betty, rubbing cold cream into her neck. Her hair is wrapped turban-like in a towel. Two glasses on the mantel are filled to the brim with vodka.

"Are the children in bed?"

"Yes," Louisa says.

She hands a glass of vodka to Betty, as a peace-offering, Betty supposes. They sip in silence while the light drains out of the day.

"Let me do your hair," says Betty suddenly. She goes upstairs for the comb. When she comes back, Louisa is sitting in front of the overmantel looking into the mirror.

Betty takes the comb from her apron pocket, gently removes the towel from Louisa's head and begins to disentangle the knots in her hair. It is waist-length, smelling strangely of fern and fruit.

"Nice shampoo."

"Yes."

Moonlight begins to shine brazenly through the French window. They can hear Edward snoring in the big room above their heads.

Betty pulls the comb's teeth through the damp, gold strands.

"It's like old times," Louisa says. "I wish I could go back. Do you ever wish that?"

"No. I'd just do the same things," Betty says.

"Yes. You're the clever one."

"Clever?"

"Poor old Betty, slaving away. You got what you wanted."

"Didn't you? A husband, children, a nice house. Father was no picnic."

A silence falls. The room seems unbearably quiet. Betty has been so busy, she has forgotten to wind the grandfather clock. A slice of winterish air slides in under the door.

"There are no satin curtains," Betty says.

"Whatever do you mean?"

"The dishwasher, the tumble dryer. You

made it up. It's all made up."

"That isn't true."

Louisa is still admiring herself in the overmantel. She sits there like someone drugged, who cannot take her eyes off her reflection. She won't meet Betty's eyes in the mirror. She doesn't care that Betty did without, sent pound notes to her children, carried buckets through the yard, threw over a chance of marriage, spread dung and washed her father's underpants for decades. She believes she can come and live here, encroach on Betty's ground, have her running around like a slave after her and her young family till the end of her days.

Betty reaches into her apron pocket. If Louisa feels the cold, high up on her neck, she doesn't react. She does not see the gleam of metal, the blades newly sharpened by her own hand. Betty holds the scissors, makes one swift cut. It only takes a second. Betty has great strength in her hands. She is still holding the scissors when Louisa, sensing the difference, sees her hair on the carpet.

Louisa is screaming and saying things, half-truths. Something about greed and a big house all to herself and having not an ounce of sympathy. But Betty isn't listening any more.

Louisa cries. She cries all night, while she packs, and all morning as she leads the children and the dog from the house. Betty says nothing. She just stands in the doorway looking out at the fine blue morning and smiles her terrible smile.

Louisa looks nothing without her hair.

클레어 키건

클레어 키건은 다재다능한 현대 소설 작가다. 첫 단편집 <남극대륙(*Antarctica*)>은 2000년 루니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두 번째 단편집 <푸른 들판을 걷다(*Walk the Blue Fields*)>와 단편소설 <포스터(*Foster*)>는 출간 이후 큰 호평을 받았다. 가장 최근 작품은 2021년 출간된 <이토록 작은 것들(*Small Things Like These*)>이다. 키건은 현재 아일랜드 웨스포드에 살고 있다.

Claire Keegan

Claire Keegan is a versatile writer of contemporary fiction. Her first collection of short stories, *Antarctica*, won the Rooney Prize for Literature in 2000. Her second collection, *Walk the Blue Fields*, and her short novel *Foster* were both published to enormous critical acclaim. Claire's long-awaited latest work is *Small Things Like These* (2021). She lives in County Wexford, Ireland.

노지양

노지양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라디오 대본 작가로 일하다 현재 영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부터 소설, 수필, 아동도서 등 100권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번역했으며, 글쓰기에 대한 열정도 남달라 에세이도 두 편 출간했다. 록산 게이, 니콜라 윤 등 많은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Jiyang Noh

Jiyang Noh studied English Literature at University, and worked as a script writer for radio before becoming an English to Korean translator. Since 2005, she has translated more than 100 books of various genres, including fiction, essay, and children's books. With her passion for writing, she has also published two essays. Jiyang Noh has translated many acclaimed works into Korean, including books by Roxane Gay and Nicola Yoon.

the arts
council
as chomhairle
ealaíon

funding
literature



Cultúr Éireann
Culture Ireland

